

가출청소년에 대한 여대생의 인식: 실태조사와의 비교 및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이 소 영

박 지 선[†]

숙명여자대학교

가출청소년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는 국내에 상당수가 존재하나, 가출청소년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가출의 원인과 가출 후 생활 방식, 가출청소년들이 보이는 문제행동 등에 대한 여대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가출청소년 관련 기존의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가출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여대생들의 인식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역시 기존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가출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인식에서의 편향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먼저, 연구 1에서는 가출청소년의 비율 및 가출의 원인, 가출청소년의 생활방식에 대한 여대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청소년들 가운데 가출을 경험한 비율을 실제보다 과다 추정하였으며, 가출 후 머무는 장소나 생활비 해결 방식에 대해서도 실태와 인식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나타났다. 더불어, 가출청소년의 성별에 따라서도 가출의 원인 및 생활비 해결 방법에 대한 인식에 있어 차이가 나타났다. 이어, 연구 2에서는 가출청소년들 가운데 음주, 절도, 성매매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비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실태조사 결과에 비해 연구 참여자들이 예상한 가출청소년들의 문제행동 비율은 현저히 높게 나타났으며, 문제행동의 유형에 따라 남녀 가출청소년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드러났다.

주요어 : 가출청소년, 성차, 인식, 실태, 문제행동

[†] 교신저자 : 박지선,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순현관 721호 / Tel : 02-2077-7832, E-mail : jipark@sookmyung.ac.kr

국내에서는 가출을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은 행위(여성가족부, 2012, p.141)”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국외에서 가출(runaway)을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허락 없이 집을 떠나거나, 밤새 집이나 법적 거주지를 비우는 것”(Slesnick & Prestopnik, 2004)으로 정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청소년이 부모의 허락 없이 집을 나가는 행위는 지위비행에 해당하며, 현행 소년법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을 우범소년으로 규정하여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다(김지연, 정소연, 2015).

청소년들의 가출에 대한 2014년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들 가운데 40.6%가 가출 충동을 느낀 적이 있으며, 실제로 가출을 실행한 청소년은 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4). 실제로 국내의 한 가출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14세-18세 미만 가출청소년은 총 11,27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남자 가출청소년은 41.8%(4,719명), 여자 가출청소년은 58.2%(6,56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연, 정소연, 2014). 그러나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가출청소년의 수 및 가출 발생률을 고려할 때, 실제 가출 청소년의 숫자는 드러난 통계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은 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차명호, 양종국, 정경용, 2010).

미국에서는 가출청소년법(Runaway Youth Acts)이 1974년에 제정될 정도로, 일찍이 청소년의 가출을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여 왔다(고미애 외, 2016). 그러나 국내에서는 1991년이 되어서야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청소년 쉼터가 1992년에 국내 최초로 설치되었다. 현재 국내에는 2017년 2월을 기준으로 전국 총 122

개의 청소년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쉼터 종사자 또한 쉼터 당 4명에서 6명으로 증가하여 점차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

그러나 이제까지 국내에서 가출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상당수가 실태 조사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런데, 이처럼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행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연구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가출청소년이 처한 가정, 학교 등의 주변 상황에 대한 고려와 함께 가출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미치는 영향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주제이다. 최근에는 가출행위를 일탈, 비행, 우범으로 낙인하는 것 자체가 결국 범죄로 이행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 홈리스(homeless) 청소년을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김지연, 정소연, 2015). 실제로, 스스로 또는 주변에서 문제아나 비행청소년으로 인식하는 사회의 낙인은 청소년들의 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장은비, 최현주, 하규영, 박은혜, 이상민, 2014),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조진욱, 명소연,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에 있어 가출의 원인과 가출 후 생활 방식, 가출 기간 동안의 문제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기존에 조사된 바 있는 가출청소년 관련 실태조사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다. 특히, 가출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역시 기존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남녀 가출청소년에 대한 인식에서의 불균형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그리하여, 가출청소년 관련 실태와 사람들의 인식 사이의 괴리가 드러난다면 가출청소년에 대한 편향된 사회적 인식을 바로잡고, 궁극적으로 가출청

소년의 부적응을 해소하고 가정 및 학교로 복귀하는 데 기여하는 디딤돌이 되고자 하였다.

가출청소년의 실태 및 문제행동

가출청소년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는 가출의 시기와 원인, 문제행동 등에 걸쳐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2012년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들이 처음 가출을 경험한 시기는 평균 중학교 2학년 무렵(13.0세)이었으며 가출을 하게 된 주된 원인은 가족적 요인인 부모님과의 갈등(61.3%)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족적 요인 외에도, 또래의 압력, 학업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들이 청소년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세정, 이호준, 2010; 차명호, 양종국, 정경용, 2010).

보다 심층적으로,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가출의 원인이 달라진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 배정환, 이윤호, 심혜인, 이정민(2013)에 따르면, 초기 청소년(초등학생)의 경우 우울과 불안, 부모의 학대, 비행친구와의 접촉 정도가 가출의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기(중학생)와 후기(고등학생) 청소년의 경우, 학업성적과 가족유형(한부모 가정), 가족과의 관계 또한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출의 예측요인에서 초기 청소년과 차이를 보였다(배정환 외, 2013).

가출청소년들은 스스로 생활하기 위해 다양한 아르바이트 등의 노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가출청소년의 15.7%가 가출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2). 또한 김지혜(2005)는 가출청소년의 60.1%가 가출

중 아르바이트나 취업 등 노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노동 경험 자체는 절도, 폭력, 성매매 등의 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으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싫은 일을 강요받는 등 노동 중 부정적인 일을 경험하는 것은 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김지혜, 2005).

가출청소년들이 나타내는 문제행동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여성가족부, 2012), 흡연(34.6%)과 음주(27.4%)를 경험한 청소년이 가장 많았으며, 절도(9.2%), 갈취(9.0%), 폭행(6.4%)을 저지른 청소년이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 성희롱/성추행(4.8%), 성관계(5.6%), 조건만남/성매매(3.3%) 등 성과 관련된 문제행동을 경험한 청소년들도 존재했다. 이처럼 가출청소년들은 술, 담배 외에도 본드 등 여러 환각성 물질에 노출되고(이세정, 이호준, 2010), 신체적, 성적 폭행의 피해자가 되는 등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위험에 처해 있다(서보람, 김광병, 2012; 이해경, 2011). 더불어, 이로 인해 자살충동으로 고통받는 가출청소년들도 존재하는 실정이다(김재엽, 김준범, 장용언, 한기주, 2016; 이해경, 2011).

가출 후 생활에 있어서, 가출청소년들은 제대로 된 숙식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길거리나 찜질방, PC방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여성가족부, 2012). 이 때문에 가출패밀리의 약어인 소위 ‘가출팸’을 통해 숙식을 해결하려는 청소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가출팸이란 2010년부터 사회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용어로, “청소년이 가출한 이후 가출 관련 카페나 실시간 채팅을 통해 3~5명의 일행을 구해 함께 생활하다 가족을 이루어 원룸, 고시원이나 모텔 등에서 생활하는 것(서보람, 김광병, 2012, p.3)”을 말한

다. 청소년들은 대체로 가출 후 외로움에 친구를 사귀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생활비를 아끼려는 현실적인 이유로 가출팸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보람, 김광병, 2012).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 오히려 가출팸을 통해 절도나 성매매 등을 강요받고, 신체적, 성적 폭행을 경험한 청소년들도 존재하였다.

외국에서도 가출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Ferguson, Bender, Thompson, Maccio, Xie, & Pollio, 2011; Tucker, Edelen, Ellickson & Klein, 2011). 가출청소년들은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 우울증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며(Tucker et al., 2011), 성적 접촉에 의한 감염과 영양실조에 걸릴 가능성도 증가하였다(Beharry, 2012). 더불어 가출 기간이 길수록 직접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며(Ferguson et al., 2011), 여자청소년의 경우 성폭력 피해 가능성 또한 증가하였다(Thrane, Yoder & Chen, 2011). 가출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극심한 스트레스는 자살시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Moskowitz, Stein & Lightfoot, 2013).

이를 종합해볼 때 가출청소년들은 여러 약물이거나 범죄 등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해도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심리적, 환경적 보호를 위해 구성된 가출팸에서 오히려 범죄 피해를 당하는 등 제대로 된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다각도로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가출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

청소년의 성별이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다각도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우선, 선행 연구들 가운데 남자청소년이 가출을 경

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배정환 외, 2013)와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이해경, 2011)가 각각 존재하였다. 이와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남자청소년의 가출 경험 비율(11.3%)이 여자청소년의 비율(8.2%)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4).

가출을 예측하는 변인에서는 뚜렷한 성차가 보고된 바 있다. 즉, 남자청소년의 경우 성폭력 피해 경험과 학교 중퇴가 가출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폭력학대 피해, 집단괴롭힘 피해, 학업문제, 가족관계 문제가 가출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이해경, 2011).

또한, 가출청소년이 나타내는 문제행동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이해경(2011)에 따르면, 가출유경험 집단에서 학업문제, 지위비행, 자살사고, 폭력적 학대의 피해를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자청소년이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폭력, 절도 등 형법상의 범죄로 볼 수 있는 범죄성비행과 청소년 성매매는 여자청소년 보다 남자청소년이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출청소년이 경험하는 문제행동들 가운데, 여자청소년의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정혜원, 박성훈, 2012). 여기에서는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을 때, 폭행이나 왕따 등 가출 전 피해경험이 많을 때, 주변에 성매매를 경험한 사람이 많을 때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10대 여자청소년)이 성매매를 함께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혜원, 박성훈, 2012).

외국에서도 가출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조사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Thompson,

Bender & Kim (2011)은 텍사스 중간 크기 도시 내 가출청소년 쉼터의 청소년 197명(여자 110명, 남자 87명)을 대상으로 가출청소년의 우울증 상태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 우울증에 대한 이전의 연구들(Ge, Lorenz, Conger, Elder & Simmons, 1994; Gore, Aseltine & Colten, 1993)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즉, 우울 점수는 남자청소년에게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해당하는 비율도 여자청소년(21%)에 비해 남자청소년(39.1%)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인식

앞서 언급했듯 현재 가출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그 실태 조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사람들이 가출청소년에 대해 지니고 있는 인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가출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 등 사회로 복귀하지 못한 채 방치되는 데에는, 이들을 향한 사회의 편견어린 시선이 기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외국에서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일레로, Safyer, Thompson, Maccio, Zittel-Palamara & Forchand (2004)는 가출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가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특히 가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서 가출청소년과 그 부모들 사이에 인식 차이가 극명히 드러났다. 즉, 가출청소년들은 가출의 이유에 있어 31.4%가 청소년에게, 25.5%가 부모에게, 41.2%가 양쪽 모두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가출청소년의 부모들은 89.1%가 청소년에게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부모에게 문

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또한, 가출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도 역시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출청소년들은 부모, 청소년, 양쪽 모두가 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골고루 나타난 반면, 가출청소년의 부모들은 단 10.9%만이 부모가 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67.3%가 청소년이 변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가출의 원인이나 책임,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에 있어 청소년과 부모들 사이에 현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특히 가출의 책임을 오롯이 청소년에게 전가하는 어른들의 인식은 청소년가출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한 개선과 대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내에서도 가출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가 적으나 존재한다.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가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황규정, 1998), 93%의 청소년들이 가출청소년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71.8%가 “상황에 따라 가출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가출 후 귀가자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문제아로 취급하였다는 응답이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황규정, 1998). 실제로 가출과 출석일수 부족으로 인해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의 학업복귀 후 선생님 등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을 둘러싼 주변의 정서적 지지와 지원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오혜영, 지승희, 박현진, 2011). 즉, 가출청소년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인식이 실제 이들의 사회복귀와 적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직접적으로 가출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가 아니더라도, 가출청소년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들을 통해서 가출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에서는 가출청소년이 경험한 문제행동들을 조사할 때 폭행, 절도에서부터 성희롱/성추행, 성관계 경험까지 조사하였으나, 가출청소년들이 경험한 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여성가족부, 2012). 다시 말해서 가출청소년들을 문제행동의 주체로 인식하고 가해자로서의 역할과 행위에 초점을 맞출 뿐, 피해자로서의 가출청소년과 이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한 취약성은 간과하는 한계점을 드러내었다.

이처럼, 현재 가출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가출청소년들의 실태 및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김재엽 외, 2016; 고미애 외, 2016; 김지연, 정소연, 2015; 김지연, 정소연, 2014; 김영희, 최보영, 이인희, 2013; 차명호, 양종국, 정경용, 2010), 사람들이 가출청소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출청소년 관련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사람들이 가출청소년에 대해 얼마나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와는 다른 편향되거나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만약 가출청소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실태 조사를 통해 드러난바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면, 이를 제대로 밝혀 가출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들이 가출청소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파악한다. 둘째, 가출청소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선행 연구에 발표된 가출청소년 실태 조사 자료와 비교하여 차이가 나타나는지 조사한다. 셋째, 이 과정에서 가출청소년의 성별

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를 통해 가출청소년에 대해 지니고 있는 인식과 실태 사이의 괴리를 알아보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가출청소년이 가정과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서울 소재 한 여자대학교에 다니는 재학생 201명이었으며, 분석대상의 평균연령은 23.32세(± 1.846)로 나타났다. 연구는 OO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측정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가출청소년 관련 실태 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과거 실제 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여성가족부 2012, 201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에 포함되었던 문항들을 바탕으로 가출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문항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2014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서는 9~24세 300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2012년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에서는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5,48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가출 행태에 대한 문항은 이 중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물론, 기존 실태조사들 역시 설문에 응한 청소년들의 실태만을 반영하고 있고, 현재 학교로 복귀하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전체 가출청소년들을 반영한다고 보기 힘들고, 따라서 표본의 대표성 및 외적 타당도에 있어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출청소년들에 조사를 통해 근접할 수 있고 피험자의 성별에 대한 정보가 제시된 거의 유일한 통계자료들이므로, 해당 실태조사들에 나타난 결과들을 본 연구의 비교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문항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출청소년의 비율, 가출의 원인, 가출 후 청소년들이 머무르는 장소, 생활비 해결 방법, 가출생활 당시 아르바이트 경험, 가출 후 귀가 이유 등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질문지 구성 시 남녀 가출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가출청소년에 대한 질문에 남녀 각각에 대해 나누어 응답하도록 하였다.

먼저, 가출청소년의 비율은 “전체 청소년 중 한번이라도 가출을 경험한 적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비율(%)로 응답하게 하였다. 전체 청소년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남자, 여자 청소년 각각에 대해서도 질문하여, 가출청소년 성별에 따른 비율에서의 인식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가출 원인, 가출 후 머무르는 장소, 생활비 해결 방법 및 가출생활 당시 아르바이트 경험 등에 대한 질문의 경우, 기존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2)에서 실제 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문항과

최대한 동일하게 구성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을 측정하였다. 이번에도 역시 각각의 문항에 있어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에 대해 나누어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순서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두 종류의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즉, 여자 청소년에 대한 질문이 먼저 나타난 설문지는 설문지 1로, 남자 청소년에 대한 질문이 먼저 나타난 설문지는 설문지 2로 명명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무작위로 나누어 절반(100명)은 설문지1에, 나머지 반(101명)은 설문지2에 응답하였다.

분석방법

우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출 경험 청소년의 비율과 실제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을 일표본 *t*검증을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 때 전체 청소년, 남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을 각각 실태 조사에 나타난 비율과 비교하고(여성가족부, 2012), 성차는 독립표본 *t*검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가출의 원인, 가출 후 청소년들이 머무르는 장소, 가출 후 생활비 해결 방법, 귀가 원인, 가출생활 당시 아르바이트 경험 등에 대해 먼저 빈도분석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각각에 있어서의 성차를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23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제일 먼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출청소년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전체 청소년 가운데 한 번이라도 가출을 경험한 비율은 평균 29.9%(SD=17.94)로 나타

표 1. 가출청소년의 비율에 대한 인식

	인식(%)	실태(%)	t
전체	29.91	9.8	15.890***
여	22.796	8.2	13.678***
남	33.609	11.3	14.868***

* $p < .05$, ** $p < .01$, *** $p < .001$

났다. 이 때 가출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인식에 있어서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자 청소년 중 한 번이라도 가출을 경험한 비율에 대한 응답은 평균 22.8%($SD=15.13$), 남자 청소년 중 한 번이라도 가출을 경험한 비율에 대한 응답은 평균 33.6%($SD=21.24$)로 나타났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 가운데 가출 경험이 있는 비율이 훨씬 낮을 것으로 생각하였다($t(200)=-13.797, p < .001$).

그러나 실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는(여성가족부, 2014), 전체 청소년 중에서는 9.8%, 남자 청소년 가운데 11.3%, 여자 청소년 가운데 8.2%만이 가출 경험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즉,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출청소년의 비율은 실태 조사를 통해 드러난 비율보다 모두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게 된 주된 원인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표 2 참조), 그 결과, 성별에 상관없이 ‘부모님 등 가족과의 갈등’ 때문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제 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2)에서도 가족과의 갈등으로 가출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61%)이 가장 높게 나타나, 연구 참여자들이 가출의 원인에 대해 비교적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연구 참여자들이 남녀 청소년에 대해 모두 두 번째로 높은 빈도로 응답한 가출의 원인은 ‘친구나 선후배의 권유’였다. 그러나, 실태 조사에서는 단지 가출청소년들의 2%만이 해당 원인으로 가출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여성가족부, 2012). 사실, 실태조사에서 두 번

표 2. 가출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한 인식

원인	여자 청소년		남자 청소년		실태조사 (%)
	빈도	유효%	빈도	유효%	
가출에 대한 호기심	6	3.0	21	10.5	5.2
부모님 등 가족과의 갈등	151	75.1	112	56.0	61.3
가정경제형편이 어려워서	3	1.5	2	1.0	1.3
학교에 다니기 싫어서	9	4.5	16	8.0	4.6
공부에 대한 부담감	6	3.0	1	0.5	3.9
친구나 선후배의 권유로	21	10.4	27	13.5	2.0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4	2.0	17	8.5	12.8
사회경험을 쌓고 싶어서	0	0.0	0	0.0	1.2
기타	1	0.5	4	2.0	7.8
전체	201	100	200	100	100

째로 높게 나타난 가출의 원인은 12.8%의 청소년이 응답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해당 사유를 남녀 청소년 가출의 원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8.5%, 2.0%에 불과하여, 실제 청소년들의 가출 원인과 사람들의 인식에 있어서의 차이를 엿볼 수 있었다.

이번에는 가출의 원인에 대한 인식에서 가출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가출의 원인을 생각할 때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chi^2=140.325, p<.001$).

청소년들이 가출 후 머무르는 장소에 대해서(표 3 참조), 연구 참여자들은 가출청소년의 성별에 상관없이 ‘친구/선후배의 집’에 머무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제 가출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친구/선후배의 집’에 머문다고 응답한 비율이 62.9%로 가장 높았다(여성가족부, 2012). 그러나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응답에서는 사람들의 인식과 실

태조사 결과 사이의 괴리가 나타났다. 즉, 실제 가출청소년들은 ‘찜질방/사우나’에서 머문다고 응답한 비율(27.2%)이 두 번째로 높았으나,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에서는 각각 여자 청소년들은 ‘가출 팸 등과 함께’(31.8%), 남자 청소년들은 ‘비디오방/만화방/PC방’에서 머물 것이라는 비율(30%)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출 팸 등과 함께 머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27.5%로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 가출청소년들 중에서는 단지 5%만이 ‘가출 팸 등과 지냈다고’ 응답하여 해당 항목에서 가장 실태와 인식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었다. 교차분석 실시 결과, 가출 후 머무르는 장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역시 가출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82.858, p<.001$).

다음으로 가출청소년들의 생활비 해결 방법에 대한 문항에서, 가출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순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표 4 참조). 연구 참여자들은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아르바이트로 번 돈’(22.4%)과 ‘평소에 모아둔 돈’

표 3. 가출 후 머무르는 장소

장소	여자 가출청소년		남자 가출청소년		실태 조사(%)
	빈도	유효%	빈도	유효%	
친구 / 선후배의 집	86	42.8	61	30.5	62.9
청소년 보호시설	7	3.5	0	0	3.6
가출 팸(가출청소년 모임) 등	64	31.8	55	27.5	5.0
여관 / 여인숙 / 모텔 등	4	2.0	2	1.0	10.4
비디오방 / 만화방 / PC방	9	4.5	60	30.0	10.9
찜질방 / 사우나	27	13.4	12	6.0	27.2
길거리 / 빈집 / 계단 / 역 건물	4	2.0	8	4.0	21.9
일(아르바이트)하던 곳	0	0.0	2	1.0	4.0
기타	0	0.0	0	0.0	22.0
전체	201	100	200	100	100

표 4. 가출 후 생활비 해결 방법

방법	여자 가출청소년		남자 가출청소년		실태조사(%)
	빈도	유효%	빈도	유효%	
평소에 모아둔 돈	44	21.9	14	7.0	58.3
집에서 훔친 돈	39	19.4	53	26.6	4.9
친구/선후배의 도움으로 받은 돈	38	18.9	36	18.1	12.6
아르바이트로 번 돈	45	22.4	30	15.1	6.1
남에게 훔치거나 빼앗은 돈	30	14.9	65	32.7	2.3
구걸해서 얻은 돈	1	0.5	0	0.0	1.8
기타	4	2.0	1	0.5	13.9
전체	201	100	200	100	100

(21.9%)으로 생활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 남자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남에게 훔치거나 빼앗은 돈’으로 생활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집에서 훔친 돈’(26.6%)을 사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교차분석 결과에서도 가출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응답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 133.574, p < .001$).

더불어 실태조사 결과(여성가족부, 2012)와 본 연구 결과 사이에도 큰 차이가 나타났는데, 실제로는 가출청소년의 58.3%가 ‘평소에 모아둔 돈’으로 생활비를 해결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특히 남자 가출청소년에 대해서 해당 항목으로 응답한 연구 참여자는 7.0%로,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출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여자 가출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은 56.09%($SD = 23.669$), 남자 가출청소년은 57.43%($SD = 23.717$)로 나타났다. 해당 응답에서 성차는 존재하지 않았다($t(198) = -.727, p = .468$). 그러나 이를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2)결과와 비교해 볼 때(표 5

참조),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가출청소년의 비율을 실제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가출청소년이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났다(표 6 참조). 여자 가출청소년의 경우, ‘슈퍼/편의점/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할 것이라고 예상한 참여자가 가장 많았으며, ‘식당/분식센터 등 음식점’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남자 가출청소년의 경우 ‘주유소’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전자오락실/PC방’이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성매매업소’ 문항 관련, 여자 가출청소년(11.4%)과 남자 가출청소년(0.0%)에 대한 응답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교차분석 결과, 아르바이트 종류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 = 112.690, p = .039$).

한편, 실태조사 결과(여성가족부, 2012), 가출

표 5. 가출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인식

	인식(%)	실태(%)	t
여	56.09	12.5	26.110***
남	57.43	17.3	23.868***

* $p < .05$, ** $p < .01$, *** $p < .001$

표 6. 가출 후 아르바이트

원인	여자 가출청소년		남자 가출청소년		실태조사 (중복%)	
	빈도	유효%	빈도	유효%	여	남
주유소	3	1.5	72	36.2	25.0	35.7
슈퍼/편의점/마트	75	37.3	36	18.1	43.0	28.7
식당/분식센터 등 음식점	43	21.4	19	9.5	53.3	41.1
전자오락실/PC방	32	15.9	59	29.6	35.5	29.6
다방/커피숍	7	3.5	0	0.0	18.4	16.9
당구장/탁구장	1	0.5	6	3.0	24.8	23.2
노래방	4	2.0	1	0.5	37.0	22.2
전화방/휴게텔	2	1.0	0	0.0	15.1	16.8
안마시술소/마사지방	3	1.5	0	0.0	15.1	20.5
비디오방/DVD방/멀티방	3	1.5	1	0.5	15.1	20.3
성인용 주점	5	2.5	2	1.0	15.9	23.4
성매매업소	23	11.4	0	0.0	15.1	21.0
기타	0	0.0	3	1.5	20.0	39.9
전체	201	100	199	100	-	-

표 7. 가출 후 귀가 원인

원인	여자 가출청소년		남자 가출청소년		실태조사 (%)
	빈도	유효%	빈도	유효%	
갈 곳이 없어서	60	29.9	26	13.1	22.1
돈이 떨어져서	84	41.8	112	56.3	11.6
행동에 대한 반성으로	3	1.5	1	0.5	13.6
가족이 생각나서	13	6.5	2	1.0	11.4
경찰, 부모님께 붙들려서	34	16.9	54	27.1	15.2
보호시설의 지도를 받아서	2	1.0	1	0.5	0.1
문제가 해결되어서	2	1.0	0	0.0	15.0
기타	3	1.5	3	1.5	10.9
전체	201	100	199	100	100

청소년이 가장 많이 경험한 아르바이트는 '식당/분식센터 등 음식점'이었다. 두 번째는 여자 가출청소년의 경우 '슈퍼/편의점/마트(43.0%)', 남자 가출청소년의 경우 '기타(39.9%)'를 제외

하면 '주유소(35.7%)'로 나타났다. 인식조사 결과와 달리, 실제 '성매매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가출청소년은 여자청소년(15.1%)보다 남자청소년(21.0%)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가출청소년들의 귀가 이유에 대해(표 7 참조) 연구 참여자들은 남녀 청소년에 대해 모두 '돈이 떨어져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자 청소년에 대해서는 '갈 곳이 없어서', 남자 청소년에 대해서는 '경찰, 부모님께 붙들려서'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귀가 이유에 대해서도 가출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chi^2=240.990, p<.001$).

반면,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2)에서 가출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에서 1위를 기록한 '돈이 떨어져서'의 경우, 실제로 그렇게 응답한 가출청소년은 10명 중 한 명 정도에 불과하였다. 특히 '문제가 해결되어서', '행동에 대한 반성으로' 귀가하였다는 응답은 각각 실태조사 결과 귀가 원인 3, 4위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당 항목으로 응답한 참여자가 둘 다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연구 2

김지연, 정소연(2014)은 가출청소년의 상당수가 가정 내 학대와 방임, 갈등 등 환경적 문제로 가정에서 '탈출'하기 때문에, 가출이라는 '행위'보다는 '취약성'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출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가출청소년이 저지르는 비행 등 문제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앞서 살펴 본 가출청소년의 가출/귀가 원인 및 가출 생활 실태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출청소년이 가출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문제행동에 대해 가해 경험뿐만 아니라 피해 경험에 대한 인식 또한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가출청소년의 문제행동 경험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을 비교해 보고, 가출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대상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연구 1과 동일하였다.

측정도구

이번에는 가출청소년이 가출 기간 동안 어떤 문제행동을 얼마나 경험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12개의 항목(흡연, 음주, 폭행, 절도, 갈취, 환각성 물질, 성희롱/성추행 가해, 성희롱/성추행 피해, 성폭행 가해, 성폭행 피해, 성관계, 조건 만남/성매매 등)을 포함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해당 항목들은 실태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일차적으로 여성가족부(2012)에 포함된 항목들을 바탕으로 하였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연구에서 조사하지 않았던 성폭행에 대해 피해, 가해 경험으로 나누어 항목에 추가하였고, 기존 연구에서 '성희롱/성추행'으로만 조사했던 항목 또한 피해, 가해 경험으로 항목을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각각의 문제행동에 대해서 가출 청소년 100명 가운데 가출 기간 동안 몇 명이나 경험하였을 지를 구체적인 숫자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 2의 문항 또한 연구1과 마찬가지로

표 8. 가출청소년의 문제행동 경험 인식과 실태조사 결과와의 차이 비교

원인	여자 가출청소년				남자 가출청소년			
	평균	표준 편차	실태 조사(%)	t	평균	표준 편차	실태 조사(%)	t값
흡연	58.27	21.467	21.5	24.283***	77.98	16.407	41.1	31.865***
음주	70.06	21.871	21.5	31.481***	82.59	15.465	30.3	47.939***
폭행	36.80	22.330	3.8	20.950***	54.60	21.698	7.7	30.643***
절도	40.14	23.9794	4.3	21.188***	49.54	23.891	11.7	22.453***
갈취	39.74	23.7487	4.8	20.861***	50.12	24.217	11.0	22.902***
환각성 물질	16.67	15.6580	1.3	13.920***	22.40	18.283	3.6	14.577***
성희롱/성추행 가해	18.36	18.5015	2.9	11.847***	40.73	24.315	5.7	20.423***
성희롱/성추행 피해	58.37	23.7600	2.9	33.099***	19.47	18.035	5.7	10.827***
성폭행 가해	13.91	15.577	-	-	34.39	23.613	-	-
성폭행 피해	48.16	25.780	-	-	14.48	16.689	-	-
성관계	53.06	24.522	1.8	29.636***	53.00	25.024	7.5	25.776***
조건만남/성매매	41.31	23.552	2.8	23.181***	26.49	21.357	3.5	15.263***

* $p < .05$, ** $p < .01$, *** $p < .001$

로 여자 가출청소년과 남자 가출청소년을 나누어 질문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무작위로 반반 나뉘어 여자 청소년에 대한 질문이 먼저 나타난 설문지 1(100명)과 남자 청소년에 대한 질문이 먼저 나타난 설문지 2(101명)에 응답하였다.

분석방법

먼저 각 응답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실태조사 결과와의 차이 및 가출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응답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 t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이번에도 역시 SPSS 2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기술통계 분석 결과(표 8 참조), 연구 참여자들은 가출청소년의 성별에 관계없이 문제행동 가운데 음주를 경험하는 비율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이를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모든 항목에서 크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연구 참여자들은 포함된 모든 항목에 있어서 가출청소년이 경험하는 문제행동에 대해, 실태 조사를 통해 드러난 비율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¹⁾

이와 함께, 가출 기간 동안 경험하는 문제행동에 있어 가출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인식

1) 성희롱/성추행 항목은 실태조사에서 가해와 피해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기에 하나의 수치를 이용해 가해와 피해를 모두 비교 검증하였다.

표 9. 가출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 경험 인식의 차이

원인	여자		남자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흡연	58.27	21.467	77.98	16.407	-19.100***
음주	70.06	21.871	82.59	15.465	-12.990***
폭행	36.80	22.330	54.60	21.698	-13.646***
절도	40.14	23.9794	49.54	23.891	-8.544***
갈취	39.74	23.7487	50.12	24.217	-9.298***
환각성 물질	16.67	15.6580	22.40	18.283	-7.411***
성희롱/성추행 가해	18.36	18.5015	40.73	24.315	-14.706***
성희롱/성추행 피해	58.37	23.7600	19.47	18.035	23.235***
성폭행 가해	13.91	15.577	34.39	23.613	-13.638***
성폭행 피해	48.16	25.780	14.48	16.689	20.627***
성관계	53.06	24.522	53.00	25.024	.054
조건만남/성매매	41.31	23.552	26.49	21.357	10.802***

* $p < .05$, ** $p < .01$, *** $p < .001$

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표 9 참조). 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의 문제행동이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에 있어 더 많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단, 성희롱/성추행 피해, 성폭행 피해, 조건만남/성매매 항목에 대해서만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더 많이 경험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단, 성관계 항목에서만 유일하게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심층 분석 결과 이는 설문지 순서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에 대한 질문이 먼저 나타난 설문지 1에 응답한 참여자들은 여자 가출청소년보다 남자 가출청소년이 성관계를 경험한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t(99) = -4.243$, $p < .001$), 남자 청소년에 대한 질문이 먼저 나타난 설문지 2에 응답한 참여자들은 남자 가출청소년보다 여자 가출청소년이 성관계를 경

험한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t(100) = 4.497$, $p < .001$). 이러한 결과는 여자 가출청소년의 성관계에 대한 응답은 설문지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은 반면, 남자 가출청소년의 성관계에 대한 응답은 설문지 순서에 영향을 받아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표 10 참조).²⁾

표 10. 가출청소년 성관계 경험

	설문지1	설문지2	t값
여	53.22	52.90	.092
남	59.96	46.10	4.077***
t값	-4.243***	4.497***	

* $p < .05$, ** $p < .01$, *** $p < .001$

2) 이를 제외하고 본 연구의 다른 항목에서는 이러한 설문지 순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이전에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가출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가출청소년 관련 선행 연구에 드러난 실태와 비교하였다. 연구 1에서는 가출청소년의 일반적인 생활과 관련된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연구 2에서는 가출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역시 이를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였다. 더불어, 연구 1과 연구 2 모두에 있어 가출청소년의 성별을 나누어 성별에 따른 인식에 있어서의 차이도 함께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포함된 가출청소년 관련 거의 모든 문항들에서 가출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응답자들의 인식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출 및 귀가의 원인, 가출 후 생활 방식 등 제반 특성에 걸쳐 가출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 차이가 두드러졌다. 뿐만 아니라 남자 청소년들이 가출을 더 많이 경험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성폭력 피해 및 성매매와 관련된 문제행동을 제외한 그 외 모든 문제행동에서 남자 청소년들의 경험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는 성별에 따른 선입견의 영향일 수도 있으나, 이전의 여러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가출 경험 및 문제행동 경험 비율이 남자 청소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으므로(여성가족부, 2012; 2014; 2016), 가출청소년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응답자들은 가출청소년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의 편향을 드러내었다. 우선 연구 참여자들은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부터 가출

청소년의 문제행동 경험 비율까지 실태조사 결과보다 모두 유의미하게 훨씬 더 높은 수치로 응답하였다. 또한 가출 기간 동안 ‘가출팸’과 머무르는 비율에 대해, 실제로는 5% 정도라는 실태조사 결과에 비해(여성가족부, 2012), 훨씬 더 많은 수치로 과다추정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더불어 가출 후 생활비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과반수의 가출청소년이 평소에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집에서 훔치거나 남에게 훔치거나 빼앗은 돈으로 생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가출청소년의 비행행동에 대해 심각하게 부정적으로 편향된 시선을 드러내었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에서 문제행동을 경험하는 가출청소년의 비율이 흡연과 음주를 제외하고는 10% 전후로 나타난 것에 비해, 본 조사 결과에서는 모두 10% 이상으로 나타나고 50%가 넘을 것이라고 예상한 문제행동(흡연, 음주, 성관계, 폭행, 성희롱/성추행 피해 등)도 많아 인식과 실태의 괴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성매매업소’에서의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남자 가출청소년들은 해당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없고, 여자 가출청소년은 열 명에 한 명꼴(11.4%)로 이를 경험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는 실제 ‘성매매업소’에서 여자청소년보다 남자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이 높았던 실태조사 결과와도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 이처럼 사람들의 인식이 실태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이 격차가 가출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과 관련하여 이러한 결과는 여자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다. 선행 연구 결과 여학생의

경우 비공식 낙인 경험, 즉 초기 비행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시선이 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은비 외, 2014). 따라서 청소년 가출에 대한 인식을 개선은 청소년, 특히 여자청소년의 2차 비행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일하게 가출의 원인에 대해서만 이전의 연구 결과와 응답자들의 인식이 일치하였다. 즉, 다수의 응답자가 가족과의 갈등을 가출의 주된 원인으로 인식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은 부모의 신체적, 성적 학대 등 가정폭력과 가정불화로 인해 가정에서 탈출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Dedel (2006)의 연구 뿐만 아니라 김지연, 정소연(2014)의 연구 및 여성가족부(2012)의 실태조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청소년 가출의 원인에 대해서만큼은 실제 가출청소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가출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청소년들의 비행에 사회적 인식이나 낙인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장은비 외, 2014), 사회로의 복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조진욱, 명소연, 2016). 이에, 본 연구 결과는 사람들이 가출청소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과 실태 사이의 괴리를 확인하고, 그 차이를 좁히고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의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인식에 대해 차별화된 개선점을 제시해 준다.

본 연구는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기존의 문항들을 활용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는데, 기존에 실태조사에서 조사되지 않았던 사항들을 포함시켰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

존의 실태조사에서는 문제행동 중 성과 관련된 문제로 '성희롱/성추행', '성관계', '조건만남/성매매' 항목에 대해 가해 경험과 피해 경험을 나누지 않고 조사를 시행한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희롱/성추행', '성폭행' 항목도 가해와 피해를 나누어 질문에 포함시켜 보다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여자 대학생에 한정되어 있어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하나의 설문지에 여자 가출청소년과 남자 가출청소년에 대한 문항을 모두 포함시켜, 앞서 응답한 내용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기존 실태조사에서 사용된 문항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므로, 기존 실태조사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문항을 포함하지 못하여 연구의 결과가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인식과 비교해 볼 대상으로 기존의 실태조사 연구 결과들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실제 가출 청소년의 숫자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통계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은 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차명호, 양종국, 정경용, 2010). 또한, 기존 실태 조사에 응답한 가출청소년들과 그렇지 않은 가출청소년들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기존 실태조사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러한 한계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남성 피해자들을 비롯한 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출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남성 피해자들

여성 피해자와 동등하게 모집하여 결과를 서로 비교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연령별로 가출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사람들의 가출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디딤돌이 되어, 가출청소년의 사회적응을 도와 가정과 학교로의 건강한 복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참고문헌

- 고미애, 홍민하, 김영은, 해주원, 이상민, 김현수 (2016). 가출청소년에서 우울증상과 애착 및 중독문제.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7(3), 181-187.
- 김영희, 최보영, 이인희 (2013). 학교밖 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욕구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4), 1-28.
- 김재엽, 김준범, 장용언, 한기주 (2016). 가출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학교폭력의 중복피해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7(2), 159-186.
- 김지연, 정소연 (2014).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1-391.
- 김지연, 정소연 (2015). 청소년의 가출횟수 및 청소년쉼터 이용경험에 따른 집단 특성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6(4), 207-237.
- 김지혜 (2005). 가출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 *한국청소년연구*, 16(2), 207-234.
- 배정환, 이윤호, 심혜인, 이정민 (2013). 청소년 가출의 위험요인 분석. *사회과학연구*, 20(2), 83-112.
- 서보람, 김광병 (2012). 가출 청소년의 가출경험에 대한 연구: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연구*, 18(1), 1-26.
- 여성가족부 (2012). 2012년 청소년유해환경 점검 종합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4).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6). 2016 청소년백서.
- 오혜영, 지승희, 박현진 (2011).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까지의 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9(2), 125-154.
- 이세정, 이호준 (2010). 가출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연구. *한국심리치료학회지*, 2(2), 13-25.
- 이해경 (2011). 청소년 가출경험을 예측하는 변인들에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3), 379-400.
- 장은비, 최현주, 하규영, 박은혜, 이상민 (2014).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 비공식 낙인, 비행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1), 185-205.
- 정혜원, 박성훈 (2012). 청소년의 가출 및 성매매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여성연구*, 83(2), 199-240.
- 조진옥, 명소연 (2016). 다시 맞이하는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 학교밖지원사업에 참여한 취약가정 학교밖 청소년에 관한 해석학적 근거이론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3(3), 375-406.
- 차명호, 양종국, 정경용 (2010). 청소년 가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분석. *소년보호연구*, 15(1), 165-192.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 총괄보고서*.
- 황규정(1998). *청소년이 바라보는 「청소년가*

- 출」에 대한 인식조사. *치안정책연구*, 11, 202-205.
- Beharry M. S. (2012). Health Issues in the Homeless Youth Population. *Pediatric Annals*, 41(4), 154-156.
- Dedel K. (2006). *Juvenile runaways guide no. 37*. Washington, DC: Center for Problem Oriented Policing.
- Ferguson K. M., Bender K., Thompson S. J., Maccio E. M., Xie B., & Pollio D. (2011). Social Control Correlates of Arrest Behavior Among Homeless Youth in Five U.S. Cities. *Violence and Victims*, 26(5), 648-668.
- Ge X., Lorenz F., Conger R., Elder G., & Simmons R. (1994). Trajectories of Stressful Life Events and Depressive Symptoms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0(4), 467-483.
- Gore S., Aseltine R. H., & Colten M. E. (1993). Gender, Social-Relationship Involvement, and Depression.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3(2), 101-125.
- Moskowitz A., Stein J. A., & Lightfoot M. (2013). The Mediating Roles of Stress and Maladaptive Behaviors on Self-Harm and Suicide Attempts Among Runaway and Homeless Yout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2(7), 1015-1027.
- Safyer A. W., Thompson S. J., Maccio E. M., Zittel-Palamara K. M., & Forehand G. (2004). Adolescents' and Parents' Perceptions of Runaway Behavior: Problems and Solutions.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1(5), 495-512.
- Slesnick N. & Prestopnik J. L. (2004). Perceptions of the Family Environment and Youth Behaviors: Alcohol-Abusing Runaway Adolescents and Their Primary Caretakers. *The Family Jo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12(3), 243-253.
- Thompson S. J., Bender K., & Kim J. (2011). Family Factors as Predictors of Depression Among Runaway Youth: Do Males and Females Differ?.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8(1), 35-48.
- Thrane L. E., Yoder K. A., & Chen X. (2011). The Influence of Running Away on the Risk of Female Sexual Assault in the Subsequent Year. *Violence and Victims*, 26(6), 816-829.
- Tucker J. S., Edelen M. O., Ellickson P. L., & Klein D. J. (2011). Running Away From Home: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Risk Factors and Young Adult Outcom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5), 507-518.
- 통계청 (2016.01.03.검색)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7
- 1차원고접수 : 2017. 04. 17.
심사통과접수 : 2017. 08. 15.
최종원고접수 : 2017. 08. 22.

Perceptions of Runaway Adolescents: Focusing on Comparison with Actual Statistics and the Gender Difference of Runaway Adolescents

Lee So Young

Park Ji Su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Research on the current state of runaway adolescents has been conducted in Korea, but there is little research on the people's perception of them. This study examined people's perceptions about the cause, lifestyle and problem behavior of runaway adolescents, and compared them with the existing survey data of runaway adolescents.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d gender differences in people's perception of runaway adolescents, and compared them to the existing data to find any bias in people's perception about male and female runaway adolescents. In study 1, people's perceptions about prevalence, cause and lifestyle of runaway adolescents are examined. As a result, participants overestimated the prevalence rate of runaway adolescents. Also, there are significant discrepancy between perception and actual statistics with respect to places to stay and living expenses of runaway adolescents. In addition, we found notable difference in people's perception about male and female runaway adolescents. In study 2, people's perception about problem behavior such as drinking, theft and prostitution is examined. As a result, participants again overestimated prevalence of problem behavior than actual statistics. Moreover, depending on the type of problem behavior, people's perception differed by gender of runaway adolescents.

Key words : *Runaway Adolescents, Gender difference, Perception, Actual statistics, problem behaviors*